

## 사명당 유정의 충의에 대한 사대부의 평가\*

이 철 현\*\*

동국대학교(경주)

---

### 【요약】

---

유정은 승려의 신분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 일본에 들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담화하고 끌려간 동포를 데려왔다. 조정의 대신들과 사대부들은 국난을 당해 충의를 다했다며 당상관직을 제수하고 선조 3대를 추증했다. 그리고 백성들은 유정을 도술을 부려 일본인을 굴복시킨 신승(神僧)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한 맺힌 울분을 풀고자 했다. 하지만 유정은 국난을 당해 국왕과 중생의 은혜를 갚고 포악한 왜적들의 악행을 멈추겠다는 자비심으로 참전했다. 그리고 한시바삐 전쟁을 마치고 산속으로 돌아가 수행하기를 염원했다.

임진왜란이후 유정의 활약에 대해 일반 사대부들은 유가의 전통사상인 충의로 유정을 평가했다. 그러나 유정과 오랫동안 교류한 사대부들은 법력을 갖춘 자비로운 고승으로 이해하며 국난에 당해 산문을 나왔지만 다시 산으로 들어가 수행에 전념하기를 바랐다.

임진왜란과 두 차례의 호란을 겪은 뒤 지역의 유림들은 흐트러진 향촌사회의 질서를 복구하고 향촌지배세력으로 지위를 확고히 하려 했다. 유교이념으로 향약을 만들고 존경받는 사림의 인물과 국난에 순절한 충신들을 배향하는 서원과 사우를 세워 충의와 예를 강조했다. 18세기초 밀양 사림에서도 임진왜란당시 활약한 유정을 지역출신 충신으로 보아 사당을 세우길 건의해 표충사를 창건했다.

유정의 5대법손인 남봉(南鵬)은 표충사 건립을 계기로 대대적인 유정의 현창사업을 하면서 사대부들의 비문과 시문을 받았다. 이들 시문들은 유정의 보은과 자비를 말하기도 했지만 대다수가 조헌·고경명·김천일·곽재우 같은 의병장들과 더불어 충의를 다한 충신으로 평가하며 같은 불자이나 속은 유자라 평가했다.

주제어; 사명당, 유정, 표충사, 충의, 자비, 보은, 남봉, 임진왜란

---

---

\* 본 논문은 2019년 10월 6일 표충사가 주최·주관한 '사명대사 호국 혼(魂) 선양사업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사명당 유정의 충의에 대한 사대부의 평가'를 수정한 논문이다.

\*\* 동국대학교(경주) 파라미터칼리지 교수, cheadlee@hanmail.net

## I. 들어가는 말

정도전을 비롯한 조선 개국의 사대부들은 전왕조의 정치·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자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불교를 배척했다. 태종은 11종이던 불교종파를 7종으로 통폐합했고 세종은 7종을 다시 선·교 양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세조가 잠시 불교를 중흥하기는 했으나 연산군은 승과를 폐지하고 중종은 경국대전에 도첩제를 삭제해 승려가 되는 길을 없앴다. 명종대에 문정대비가 승과를 부활하고 승불정책을 폈으나 문정대비의 사후에 승과는 곧바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잠시 부활한 승과에서 청허당 휴정(1520~1604)과 사명당 유정(1544~1610)이 급제했고, 이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승병을 모아 전공을 세웠다. 팔도도총섭은 휴정이었지만 연로한 휴정을 대신해 실제 의승병을 지휘한 자는 유정이었다.

임진왜란을 통해 유정의 활약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의승장으로서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운 일이다. 둘째는 명나라와 왜가 조선을 배제하고 강화회담을 하자 가토 기요마사 진중에 들어가 강화내용을 알아내고 적군을 정탐한 일이다. 셋째 임진왜란이 끝난 뒤 탐적사로 일본에 들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끌려간 동포를 데려 오고 조·일 갈등을 해결한 일이다.

조정에서는 유정에게 여러 차례 당상관직을 제수하고 선조 3대를 추증했다. 일반 사대부들은 유정의 충의를 찬탄하는 시를 지었고, 유정과 교류한 사대부들은 유정의 보은과 자비심을 이해하는 시를 지었다. 같은 해 과거에 합격해 평생지기인 이산해는 국난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산을 나온 유정의 심정을 달래며 한시바빠 국사를 마치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랐다. 유정과 각별한 사이였던 허균은 『사명당집』의 서문과 「사명송운대사석장비문」에서 고승으로서 유정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려 노력했다.

유정의 사후 백여 년이 지나 밀양의 유림에서는 유정을 동향출신의 충신으로 받들어 사당 건립을 주도하여 표충사를 세웠다. 유정의 5대법손<sup>1)</sup>인 남봉(南鵬)은 표충사를 중흥하고 대대적인 유정의 현창사업을 계획했다. 남봉은 사대부들을 찾아다니며 유정을 찬탄하는 시문을 모아 1738년에 『표충사제영』을 발간하고<sup>2)</sup>, 1739년엔 유정의 난중일기인 『분충서난록』을 발간하고, 1743년엔 영당비를 세웠다.

임진왜란 이후 유정이 입적하기까지 사대부들의 평가와 18세기 남봉이 유정 현창사

1)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에 의하면 남봉은 유정의 5대 법손이 아니라 실은 편양언기의 5대 법손이니 유정의 직계는 아니다.

2)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는 목판본 『표충사제영』1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1738년 연초(演初, 1676~1750)가 간행했다는 간기가 있다. - 이대형, 「표충사시첩해제」 『밀양표충사시첩』,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18

업을 하면서 받은 사대부들의 비문과 시문을 통해 사명당 유정의 임진왜란이후 활동에 대한 사대부들의 평가를 살펴보자.

## II. 유교의 충의(忠義)와 불교의 보은(報恩)·자비(慈悲)

### 1. 유교의 충의(忠義)

고려를 이은 조선은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개창한 왕조로 개국 초부터 송유억불 정책을 나타내면서 점차 유교국가 체제를 확립했다. 유교의 윤리강령과 실천을 나타낸 것이 오륜이며 가장 먼저 군신유의(君臣有義)를 강조했다. 유교의 시조인 공자는 사군이충(事君以忠)<sup>3)</sup>이라 했다. 임금과 신하는 의(義)가 있어야 하며, 신하는 충(忠)으로 임금을 섬겨야 한다는 말이다. 충이란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정신이자 나라를 위한 근본으로 여겼으며 나아가 신하가 군주에게 순종하는 도덕적 의무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대체적으로 충을 군주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진(秦)때부터이며 특히 한(漢)대 이후에 강조되었다.<sup>4)</sup> 그리하여 충이란 신하가 임금을 받들며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유교 윤리가 되었다. 그러나 충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충의 본질은 『충경(忠經)』에 잘 나타나 있다.

옛날에 지극한 이치가 있었으니 상하(上下)의 덕이 하나가되어 하늘의 아름다움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충의 도리다. 하늘이 감싸고 땅이 싣고 사람이 밝는 데에 충보다도 위대한 것은 없다. 충이란 중이니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사시(四時)가 운행되고 땅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만물이 생겨나며 사람은 사사로움이 없으면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된다. 충이란 마음이 하나됨을 말한다. 나라의 근본이 어찌 충이 아니겠는가? 충이란 임금과 신하를 굳건히 하고 사직을 편안히 하며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고神明(神明)을 움직이니 하물며 사람이야 어떠하겠는가? 충은 자신에게서 일어나 집안에서 드러나고 나라에서 완성되는데 행하는 것은 하나다. 그러므로 자신에 한결같은 충의 시작이요, 집안에 한결같은 충의 중간이요, 나라에 한결같은 충의 마지막 단계다.<sup>5)</sup>

3) 『논어』「八佾」, 君使臣以禮臣事君以忠.

원광법사가 귀산과 추항에게 준 세속오계에도 事君以忠을 말했다.

4) 鄭萬祚, 『조선시대서원연구』, 서울: 집문장, 1997, p.91

5) 『忠經』「天地神明」, 昔在至理 上下一德 以徵天休 忠之道也 天之所覆 地之所載 人之所履 莫大乎忠 忠者

자기 마음에 맞게 함이 충이라고 보고 그 마음을 미루어서 타인을 포용해 가는 것이다. 내 마음에 맞는다 함은 나의 주체라는 뜻이요, 따라서 자아확립 없이 대인(對人)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sup>6)</sup> 곧 자기 온 정성을 다하며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충의 대상이 자기에서 시작해 가정으로, 나아가 국가에게 이르러 완성된다고 했다.

충(忠)은 가운데 중(中)과 마음 심(心)이 합쳐진 글자로 마음이 치우침 없이 가운데 있다는 말이다. 주자(朱子)는 충(忠)에 대해 ‘충이란 자기 마음을 다하되 조금도 거짓이 없는 것이며 반드시 여기에 근본하기 때문에 도의 체(體)라 한다.’<sup>7)</sup>고 했다. 자기 마음이 사사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중심을 잡는 게 충이며 도의 본질이라고 했다. 곧 마음이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잡힌 마음에서 행동하는 게 바로 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충은 개인의 신념과 수양에 달려있다.

『주례(周禮)』에서는 여섯 덕목으로 인(仁)·성(聖)·의(義)·충(忠)·화(和)·중(中)를 들고 있으며, 맹자는 네 가지 덕으로 인(仁)·의(義)·예(禮)·지(智)를 말하고 있다. 모든 덕목의 처음은 인(仁)에 있으며, 인(仁)으로부터 의(義)를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공자는 ‘이익을 볼 때는 의를 생각하라’<sup>8)</sup>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sup>9)</sup>고 했다. 개인 이익과 안위를 생각해서는 안 되며 사회 정의와 평화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주자는 의(義)에 대해 ‘마음의 절제이며, 일의 마땅함’<sup>10)</sup>이라고 했다. 개인 이익과 명예와 권력 등으로 흐르기 쉬운 자기 마음을 잘 절제하여 일을 정의롭게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곧 의는 개인 보다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행동하라는 원리라 할 수 있다.

자기 마음이 치우침이 없는 충과 자기 마음을 잘 절제하여 일을 정의롭게 처리하는 의는 상호보완적이며, 개인에게서 가족으로 나아가 국가로 확장되어야 하는 인간의 윤리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자 유가에서는 승려도 왕에게 예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교가 탄생한 인도에서는 수행자가 군주에 예경하는 일은 없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사성계급이 있는데 최상위 계급은 성직자인 브라만이고 그 다음이 왕족인 꼬샤

中也 至公無私 天無私 四時行也 地無私 萬物生 人無私 大亨貞 忠也者 一其心之謂矣 爲國之本 何莫由忠 忠能固君臣 安社稷 感天地 動神明 而況於人乎 夫忠興於身 著於家 成於國 其行一焉 是故 一於其身 忠之始也 一於其家 忠之中也 一於其國 忠之終也

6) 성균관대학교유학과교재편찬위원회, 『유학원론』, 서울: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2, p.143

7) 『논어』「里仁」, 忠者 盡己之心無少僞妄 以其必於此而本焉 故曰道之體

8) 『논어』「憲問」, 見利思義

9) 『논어』「里仁」,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10) 『맹자』「梁惠王章」, 心之制 事之宜

뜨리아였다. 석가모니는 바라문계급은 아니었으나 성직자로 인정되었고 당시 왕들이 석가모니를 찾아와 예를 갖추었다. 불경 가운데에는 제왕과 불교 승려사이의 관계를 묘사할 때 항상 제왕이 승려를 향하여 예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승려가 제왕을 향하여 예를 올렸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sup>11)</sup>

유가에서 승려도 왕에게 예경해야 한다고 하자 혜원(慧遠, 334~416)은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을 지어 ‘안으로 천륜의 은혜에 어그러지더라도 효를 어기는 게 아니며, 밖으로 군주를 받들며 공손함이 결여되어도 예경을 잃은 게 아니다.’<sup>12)</sup>고 했다. 출가자는 덕을 온전히 해 육친에게 흠족하게 감화를 주고 그 은혜가 온 세상에 미치므로, 세속의 충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세속을 벗어났으므로 세속적 정치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승려들이 연구와 수행에 전념하고 왕실과 귀족들이 불교를 보호하던 시절엔 왕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진 않았다. 이후 황제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불교는 점차 세력이 약화되고 결국 왕의 권력아래 놓이게 된다. 승려들이 제왕들에게 예를 바친 것은 원나라 이후라고 한다.<sup>13)</sup>

왕의 권력이 강해지자 왕에 대한 충성은 강조되었고, 불교를 국가권력 아래에 두면서 승려에게도 충성을 강요했다.

## 2. 불교의 보은(報恩)

대승불교경전에는 국왕에 대한 충성을 말하지는 않으나 국왕의 은혜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다.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 「보은품(報恩品)」에는 ‘세간과 출세간의 은혜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부모의 은혜, 둘째는 중생의 은혜, 셋째는 국왕의 은혜, 넷째는 삼보(三寶)의 은혜다. 이 네 가지 은혜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짊어지고 있다.’<sup>14)</sup>고 했다. 이 네 가지 은혜는 세간과 출세간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짊어지고 있는 은혜이므로 출가 수행자도 이 네 가지 은혜가 깊고 두터운 걸 잘 알아야 한다고 했다.

중생의 은혜에 대해서는 ‘모든 중생이 백천 겁을 지내며 윤회하면서 서로 부모가 되었기에 부모의 은혜와 같아 차별이 없다.’<sup>15)</sup>고 했다. 그리고 국왕의 은혜에 대해서는

11) 양 웨이난 지음, 원필승 번역 『불교사상사』, 서울: 정우서적, 2010, p.273

12) 「沙門不敬王者論」 『弘明集』 『고려대장경』33, p.187c 內乖天屬之重 而不違其孝 外闕奉主之恭 而不失其敬

13) 양 웨이난 지음, 앞의 책, p.277

14) 『大乘本生心地觀經』 『고려대장경』37, p.488c 世出世恩有其四種。一父母恩。二衆生恩。三國王恩。四三寶恩。如是四恩。一切衆生平等荷負。

15) 위의 책, p.489c 衆生恩者, 卽無始來, 一切衆生輪轉五道經百千劫, 於多生中互爲父母; 以互爲父母故,

‘큰 성왕(聖王)은 바른 법으로 교화하여 중생들이 모두 안락하게 한다. 세간의 모든 전당(殿堂)에는 기둥이 근본이 되듯이 사람들이 풍요로운 데에는 왕이 근본이 되며 왕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범왕(梵王)이 만물을 만들 듯 성왕(聖王)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만들어 중생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며, 태양이 세간을 비추 듯 성왕은 세상 사람을 관찰하여 편안하고 즐겁게 하기 때문이다.’<sup>16)</sup>고 했다. 중생은 나를 낳아준 부모와 같으며, 국왕은 중생들을 안락하고 풍요롭게 해 주기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휴정도 『선가귀감(禪家龜鑑)』에서 ‘참선하는 자는 네 가지 은혜가 깊고 두터운 걸 잘 알아야 한다. … 네 가지 은혜란 부모의 은혜, 군주의 은혜, 스승의 은혜, 시주자의 은혜다.’<sup>17)</sup>고 했다. 삼보의 은혜 대신 스승의 은혜를, 중생의 은혜 대신 시주자의 은혜를 말했지만 경전의 네 가지 은혜(부모, 중생, 국왕, 삼보)와 휴정의 네 가지 은혜(부모, 군주, 스승, 시주자)는 다르지 않다.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아 오늘의 내가 존재하며, 중생 곧 시주자들이 의식주를 제공하기에 수행을 할 수 있으며, 국왕은 백성들이 풍요롭고 안락하게 하여 수행공간을 만들어 주며, 삼보는 곧 불·법·승으로 출가수행자가 스승으로 삼기 때문이다. 출가자는 세속을 떠나 수행하지만 이 네 가지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은혜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이기도 하다. 국왕에 대한 수호가 국토의 수호로, 국토의 수호가 국민의 수호로, 국민의 수호가 반야바라밀에 의한 개개인의 자각으로 성불을 향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다.<sup>18)</sup>

임진왜란이 일어나 한양을 빼앗기고 의주로 피란길에 오른 선조가 휴정에게 “국난이 이러하니 그대가 구제할 수 없겠는가?”하고 묻자 휴정은 “신들이 비록 속세를 떠났으나 국내에서 태어나 성상(聖上)의 은혜와 길러주심을 입었사오니, 어찌 한번 죽는 것을 아끼겠습니까? 원컨대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sup>19)</sup>고 했다. 휴정은 국왕의 은혜를 말하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도 의승병을 모을 때 “우리들이 한가로이 거닐며 먹고 마시는 것은 모두 임금의 은혜이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나라를 구하지 않고 앉아서 바라만 볼 수 있겠는가.”<sup>20)</sup>하고 말했다.

一切男子卽是慈父, 一切女人卽是悲母, 昔生生中有大恩故, 猶如現在父母之恩等無差別

16) 위의 책, p.489c 是大聖王以正法化, 能使衆生悉皆安樂. 譬如世間一切堂殿, 柱爲根本, 人民豐樂, 王爲根本, 依王有故, 亦如梵王能生萬物, 聖王能生治國之法利衆生故. 如日天子能照世間, 聖王亦能觀察天下人安樂故.

17) 『禪家龜鑑』 『韓國佛教全書』7, p.637c 大抵參禪者 還知四恩深厚麼 … 四恩者 父母君師施主恩也.

18) 김호귀, 「신라 忠義 관념의 형성과 불교의 世俗五戒」 『대각사상』17(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2), p.107

19) 『대동야승』37, 「再造藩邦志」2, 臣等雖非人類. 生於國內. 荷聖上恩育. 何惜一死. 願效忠赤

20) 「密陽表忠詞松雲大師影堂碑銘」 『韓國佛教全書』8, p.108c 吾等優游飲啄 皆 聖恩也 今國危至此 坐視不救可乎 「有明朝鮮國慈通弘濟尊者四溟松雲大師石藏碑銘(이하 ‘石藏碑’)」에도 ‘우리들이 이 나라에 태어나서 거주하면서 먹고 쉬고 편안히 거닐면서 여러 해를 지내온 것은 털끝만한 것이라 모두 임금님의 은혜이

유정은 갑오년(1594) 9월에 올린 상소문에서도 ‘과거의 세월은 모두 성스런 임금께서 내려주신 은혜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무리라 하여 임금을 잠시라도 감히 잊을 수 있겠습니까? … 신은 본래 사슴과 노니는 몸으로 군대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한 놈의 적이라도 죽여 성상의 망극한 은혜를 갚고자 함은 어찌 의관을 갖춘 자에 뒤지겠습니까?’<sup>21)</sup>했다.

한양·개성·평양을 차례로 빼앗겨 임금이 국경너머로 피난 가려는 국가존폐의 위기며 백성들은 처참히 살육되고 끌려가는 현실에서 휴정과 유정은 세속을 떠난 수행하는 자라며 수수방관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휴정과 유정을 비롯한 승려들이 산문을 나와 전장을 누비고 적진을 드나들었는데 이는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며 국왕과 백성의 은혜를 갚기 위함이었다.

### 3. 불교의 자비(慈悲)

모든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불쌍히 여겨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비는 불교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 덕목이다. 그러므로 불교신자들에게도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다.

승려가 지켜야할 비구계에는 인간을 죽이면 승려자격을 박탈한다는 조목이<sup>22)</sup>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를 구경하거나<sup>23)</sup>, 용무가 있어 군중에서 머물되 3일 이상 머물거나<sup>24)</sup>, 군중에 유숙하면서 군대가 싸우는 것을 보면<sup>25)</sup> 참회해야 한다는 조목이 있다. 자기 수도를 청정히 하기 위해 군과 접촉하는 걸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자기 수행과 함께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불교에서는 자비심을 발휘하는 보살계를 중요시 한다. 보살계에서도 살생을 하지 않는 계가 가장 먼저며<sup>26)</sup> 살생의 기구를 쌓아두지 말고<sup>27)</sup>, 국가의 군사가 되지 말고<sup>28)</sup>, 악한 마음으로 일체의 남녀가 싸우는 것이나

다. 이러한 위급함을 당하여 어찌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겠는가?(我等 生居國土 息食優游 閱有年紀者 秋毫皆上力也 值此艱危 其忍坐視)’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1) 「甲午九月 馳進京師上疏 言訂賊保民事疏曰」 『韓國佛教全書』8. pp.90c~91a 過去歲月 皆是 聖明之澤 敢以縑流自外 忘 君父於一飯之頃哉 … 臣本以麋鹿之身 不識兵家之事 然而欲殺一賊 以報 聖上罔極之恩 則豈有下於衣冠哉

22) 『四分律』의 4바라이법(波羅夷法)에는 단인명계(斷人命戒)가 있다.

23) 『四分律』의 90바일제법(波逸提法)에는 48관군계(觀軍戒)가 있다.

24) 『四分律』의 90바일제법(波逸提法)에는 49유연군중과한계(有緣軍中過限戒)가 있다.

25) 『四分律』의 90바일제법(波逸提法)에는 50관군합전계(觀軍合戰戒)가 있다.

26) 『梵網經』의 10중계(重戒)에는 맨 처음에 불살생계(不殺生戒)가 있다.

27) 『梵網經』의 48경계(輕戒)에는 10축살생구계(畜殺生具戒)가 있다.

군진의 장병이나 도적들의 싸움을 보지 말라<sup>29)</sup>는 조목이 있다.

보살계에서는 출가수행자가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위한다면 방편으로 계를 파할 수도 있다는 개차법(開遮法)을 말한다. 보살은 교화의 방편에 의해 교묘하게 생명이 있는 자를 죽이는 등 10종류의 악업을 행하더라도 그것으로 범계를 범한 것으로 할 수 없다<sup>30)</sup>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보살의 마음을 가졌을 때만 가능하다.

유정은 임진왜란초기 왜군이 금강산 유점사 승려들을 목자 고성으로 들어가면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원래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서다. 이 왜적들이 저렇게 퍼져 있으니 함부로 잔인하게 해칠까 두렵구나. 내가 마땅히 가서 저 미친 왜적들을 타일러 이 흉한 무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비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sup>31)</sup>고 했다.

왜군의 살인과 약탈, 노략질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호하고, 왜적을 물리쳐 왜적들이 더 이상 무간지옥에 떨어질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전한다는 것이다. 김방룡은 ‘승병장으로서 활동한 것이 깨달음 이전의 행위인가, 아니면 깨달음 이후의 활동인가 하는 것은 그의 행위가 국가와 군주를 위한 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혹은 깨침 이후의 자비행 즉 공(公)과 사(私)가 조화내지 승화되어 불일불이(不一不異)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sup>32)</sup>고 했다.

임진왜란 당시 유정은 49세로 선(禪)과 교(敎)를 섭렵하고 휴정의 심법을 이은 고승으로 인정받아 금강산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임진왜란의 전란 속에서 유정의 삶은 선정과 지혜를 갖춘 고승으로서 보살의 자비심을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교의 충의가 국왕에 국한한다면 불교의 보은과 자비는 국왕과 백성 곧 중생을 포함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유정은 자신이 승려라는 걸 한시도 잊지 않고 있으므로 유정의 활동은 유교의 충의가 아닌 불교의 보은과 자비였다.

28) 『梵網經』의 48경계(輕戒)에는 11통국입군계(通國入軍戒)가 있다.

29) 『梵網經』의 48경계(輕戒)에는 33허작무의계(虛作無義戒)가 있다.

30) 荒牧典俊, 「菩薩行と戒」 『佛教における戒の問題』(京都: 日本佛教學會, 1984) p.86

31) 許筠, 「慈通弘濟尊者四溟松雲石藏碑銘」 『朝鮮金石總覽』下,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6, p.825 如來出世元爲救護衆生此賊張甚恐肆殘害吾當往諭狂敵俾戢凶鋒則庶不負慈悲教也

32) 김방룡, 「사명당 유정의 승병활동과 공공행복」 『동서철학연구』66(서울: 한국동서철학회, 2012), p.204

### Ⅲ. 임진왜란부터 입적직후 평가

임진왜란이후 의승장으로 활약한 유정에 대한 사대부들의 시각은 조금씩 달랐다. 직접 전투에 참여해 왜적과 싸웠던 의병장들과 사대부들은 승려인 유정의 충의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나라의 안위만을 생각할 뿐 유정의 구도는 안중에 없었다. 반면에 오랫동안 유정과 교류해온 사대부들은 국난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참전하는 유정의 심정을 이해하며 한시바빠 국난이 끝나 유정이 산으로 돌아가 수행에 전념하기를 바랐다.

한양·개성·평양을 내 주고 선조가 국경을 넘어 명나라로 피신하느냐 마느냐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승군이 명군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들은 선조와 대신들은 죽기 직전에 구출된 듯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선조는 승려인 유정에게 파격적으로 당상관직을 제수했다. 유정이 이끄는 의승군은 한양을 포기하고 후퇴하는 왜군을 쫓아가며 전투를 계속했다.

의승장 김덕령(金德齡, 1567~1596)은 유정에게 보낸 글에서 ‘왜적이 평양과 한양에서 물러나 삼도(三道)로 내려간 뒤에도 남으로 내려가면서 싸우는 유정에 대해 어찌 대장의 충성은 이렇게 한결같이 굳세냐.’고 했다. 그러면서 석씨는 성인의 죄인인데 석씨의 불자가 부자·군신의 도리인 이륜(彝倫)과 물에 빠진 자를 건지고 나라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인의(仁義)를 다하면 명색은 불자지만 행동은 유자의 도라고 했다. 이륜과 인의를 행한 이는 오직 대장뿐이라며 나라로부터는 털끝만한 은혜가 없었음에도 국난을 맞아서 적과 싸우려는 의기(義氣)는 고기를 먹는 자보다 오히려 더하다고 했다. 세속을 떠나 머리를 깎은 승려지만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백성들이 살육당하는 현실에서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충의를 다함은 유자의 도를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sup>33)</sup> ‘명색은 불자이나 행동은 유자’라는 김덕령의 평가는 훗날 ‘겉은 불자이나 안은 유자’라는 말로 이어진다.

유정과 같은 밀양 출신으로 의병장으로 활약한 손기양(孫起陽, 1559~1617)은 ‘짐승과 함께 함은 본래 뜻 아니나, 군신의 대의를 차마 잊을 수 없었네.’<sup>34)</sup>라고 했다. 짐승 같은 왜적과 싸우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은 승려로서 할 일은 아니나 나라를 위한 충성과 군신의 대의를 위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덕형(李德馨, 1561~1613)은 ‘날랜 용사도 주저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늙은 선사는 홀로 불쌍한 마음에 분주히 뛰어다니네, 충절이 세상을 놀라게 할 줄 알았다’<sup>35)</sup>고 했다. 임진왜란을 겪은 대부분의 사

33) 『쇄미록』3 「僧義兵八道都大將書」, 조영록 지음, 『사명당평전』, 서울: 한길사, 2009, pp.367~368 참조

34) 『송운대사분충서난록』『韓國佛教全書』8. p.106c 鳥獸同羣非素志。君臣大義忍忘情。

35) 위의 책. p.105a 猛士遲回猶惜死。老禪奔走獨傷情。固知忠節驚人世

대부들과 의병장들은 유정을 나라와 임금을 위해 충의를 다하는 유자의 도를 실천한 고승으로 평가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정은 부산성을 쌓는 등 국가의 부름에 따랐으며, 간간히 산으로 돌아가 수행하며 지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강화를 요구하며 으름장을 놓는 일본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 조정에서는 유정을 탐적사란 이름으로 일본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사대부들은 일본으로 들어가는 유정을 위해 도일시를 지어 환송했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회담하고 끌려간 동포와 함께 귀국하자 환영시를 지어 치하했다.

일본으로 들어가는 유정을 ‘나라를 염려하는 충성심으로 일신을 돌아보지 않고, 가을바람에 갈댓잎 하나로 하늘나루 건너가네’<sup>36)</sup> ‘제(齊)나라 국난을 수습하듯 이제 바다에 뜬 늙은이, 은혜를 갚고자 산에서 내려온 심정이네’<sup>37)</sup> ‘번뇌는 이미 벗어났으며, 자비를 어찌 헛되이 버리겠는가 ... 오랑캐 목에 줄을 묶어 돌아오리라’<sup>38)</sup>라고 노래했다. 국난에 처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다고 노래하면서도 이미 번뇌를 벗어난 보살로써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심으로 전장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승려가 전장에서 활약하고 탐적사로 도일함에 대해 유자들은 ‘허리에 찬 긴 칼은, 오늘날 남아들을 부끄럽게 하네’<sup>39)</sup>, ‘고기 먹으며 비루한 피나 내던 우리가 부끄럽다오, 어렵고 위험한 이 길에 그대를 보내노라니.’<sup>40)</sup> ‘시 삼백을 잘 외우는 제생들이 우습구나, 험한 길 바야흐로 불교에 의지할 줄이야’<sup>41)</sup> ‘묘당에 세 정승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나라의 안위는 한 승려에 달렸노라.’<sup>42)</sup>고 했다. 사초를 기록하는 사신은 ‘불공대천의 원수와 강화하는 것만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또 일개 사문의 힘을 빌려 일을 이루려 하다니, 고기 먹는 사람들의 피가 비루하다 하겠다.’<sup>43)</sup>고 했다. 사대부들은 나라의 일을 일개 승려에게 맡기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결정이었다.<sup>44)</sup> 이에 대해 ‘묘당에 어찌 적을 이길 계책이 없었으랴만, 선사의 이술(異術)을 시

36) 이우(李瑀, 1542~1603), 위의 책. p.106a 耿耿丹心不顧身。秋風一葉泝天津。

37) 이안눌(李安訥, 1571~1637), 위의 책. p.105b 報恩從昔下山情

38) 임전(林鉉, 1560~1611), 위의 책. p.106b~c 煩惱固已脫。慈悲豈虛擲。... 繫頸變僧伽。

39) 이수광(李睟光, 1563~1628), 위의 책. p.105b 腰間一長劍。今日愧男兒。

40) 이안눌(李安訥, 1571~1637), 위의 책. p.105b 肉食鄙謀吾有愧。艱危此路送君行。

41) 이시발(李時發, 1569~1626), 위의 책. p.105c 詩多三百笑諸生。險道方知仗化城。

42) 莫道廟堂三老在 安危都付一僧歸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짧은 시로 『난중잡록』4, 『연려실기술』17 등에 수록되어 전한다.

43) 『선조실록』선조37년 3월 14일, 史臣曰: “不共戴天之讎, 與之和好, 既已羞矣, 而又籍一沙門, 欲成其事, 肉食之謀, 可謂鄙矣”

44) 조선에서 탐적사로 유정을 일본에 보낸 일은 탁월한 결정이었다. 일본은 불교를 신앙하는 나라고, 임제종의 오산(五山)승려들이 외교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승려간의 교류로 조일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정식 사신이 아닌 승려이기에 경계심이 적어 정보수집에 유리하고, 전쟁중에 적진에 들어가 가토 기요마사와 담화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설보(說實)화상이라 널리 알려져 있었다.

힘해 보았다.’<sup>45)</sup>며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국난에 이르러 이교도라 배척했던 승려들이 계율에서 금하는 살생을 마다않고 전장에 뛰어들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활약하자 사대부들은 너무나 놀라면서도 감격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상황에서 승려들이 전투에 참여하니 너무나 고마웠고, 이들을 이끈 유정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들이 천시하던 승려라 내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사대부들은 일본으로 승려 유정을 보내야 하는 현실에 부끄러워하면서도 불만스런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들에게 다시 승려란 이교도일 뿐이고 노역을 담당할 일꾼일 뿐이었다.

승려인 유정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들은 유정과 오랜 세월 함께 한 사대부들이었다. 유정은 승과에 급제한 뒤 이산해·고경명·최경창·허미숙·임제·이달과 같은 당시 학사들과 시문을 주고받으며 교유했다.<sup>46)</sup> 그리하여 임진왜란 당시 많은 사대부들은 유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국난을 당해 전장에 뛰어든 유정을 반기면서도 산으로 돌아가 수행하고자 하는 유정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한시바빠 국사를 마치고 승려의 본분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유정과 같은 해(1561)에 문과급제한 삼십년 지기인 이산해(李山海, 1539~1609)는 ‘삼십년 전에 푸른 눈빛으로 만나/ 궁궐에서 내린 조서가 영화롭네/ 소나무는 홀로 빼어나 절개를 지키고/ 구름은 한가로이 날아 유정을 물리치네/ 출가가 할 일 않는다 말하지 마라/ 나라에 몸 바침은 공명을 위한 것이 아니니/ 가을바람 관동 길에 석장 짚고/ 산중으로 돌아가 명월을 감사하시길.’<sup>47)</sup>하는 시를 지었다. 유정의 자호(自號)인 송운(松雲)을 넣어 소나무는 절개를 지키기 위함이고, 구름은 걸림 없이 한가로운 삶을 의미한다고 했다. 출가자가 세속의 일에 매여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말라고 하면서 국난을 당해 산문을 나왔을 뿐 명리를 위함이 아니기에 한시바빠 국사를 끝내고 산중으로 돌아가 수행하라며 유정의 심정을 달래고 있다.

허균(許筠, 1569~1618)은 중형 허봉(許篈, 1551~1588)과 유정이 교분이 깊었던 인연으로 유정과 는 오랫동안 교분을 쌓았다. 허균은 「사명송운대사석장비」에서 유정이 말세의 시끄러운 시대에 태어나 국가를 위해 왜적과 싸우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겨를이 없었지만 마군을 소탕해 환난을 구제했으니 공덕이라고 했다. 그리고 악마를 꺾고 고통에서 꺼내 주어 나라가 병들지 않았고 자비의 배를 띄워서 완악한 오랑캐를 감화시켰다고 했다.<sup>48)</sup>

45) 조희일(趙希逸, 1575~1638), 『송운대사분충서난록』 『韓國佛教全書』8. p.106a 廟堂豈無制勝筭。師有異術聊試之。

46) 「사명송운대사석장비」 『사명당대사집』,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p.470 참조

47) 『송운대사분충서난록』 『韓國佛教全書』8. p.105b 休道出家無事業 不應殉國爲功名 秋風杖錫關東路 好向山中弄月明

48) 허단보, 「사명송운대사석장비」 『사명당대사집』,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pp.476~477 참조

허균은 붓다가 전한 열반의 묘한 마음이 등불로 이어져 휴정에 이르렀으며 휴정 문화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오직 유정만이 심법을 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유정이 자비심을 가지고 전쟁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제함을 이 자비의 배에 비유하고 있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 일본으로 들어가 끌려간 동포들을 데리고 오자 자비의 배를 띄웠다고 했다. 나라와 백성을 구한 행위는 곧 부처가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일<sup>49)</sup>이라는 것이다.

유정은 임진왜란의 일을 손수 기록하고는 『골계도(滑稽圖)』라 했다. 골계(滑稽)란 ① 재치가 있어 말이 유창함 ②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우습게 하는 말이나 짓<sup>50)</sup>이란 의미다. 유정에게 임진왜란의 일은 승려의 본분사가 아니며, 국난을 당해 나라와 중생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밝히고 있다. 세속의 명리를 위한 일이 아니기에 관직의 제수에 연연하지 않고 한시바삐 산으로 돌아가 수도하고자 했다. 나라를 구하는 일과 도를 구하는 일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유정의 심정을 훗날 사람들은 삼일동안 영의정을 하고 산으로 돌아갔다는 삼일정승의 일화로 표현했다.

삼십년 지기 이산해는 산으로 돌아가 수행하고자 하는 유정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시로 달랬고, 오랫동안 유정과 교류했던 허균은 유정의 신상과 마음을 꿰뚫고 있었기에 비문을 통해 고승으로서 면모를 드러내었다. 이산해와 허균과 같은 이가 없었다면 유정은 한갓 충의를 다한 의승장으로만 알려졌을 것이다.

#### IV. 18세기 표충사 중흥에 따른 평가

임진왜란 이후 각 지역의 유림들은 서원을 건립하고 향안(鄉案)을 중수하고 향약(鄉約)을 제정함으로써 전란을 통해 흐트러진 향촌사회의 질서를 복구하는 일을 통해 향촌지배세력 상호간의 결집과 동질성을 강하게 유지하려고 했다.<sup>51)</sup>

사우를 세우는 뜻에 대해서 ‘사묘(祠廟)를 세워 (선현을) 숭봉하는 것은 대개 비단 지하의 충혼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실로 신자(臣子)에게 만세(萬世) 충의(忠義)의 커다란 가르침을 밝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고 했다.<sup>52)</sup> 신하들과 자손들에게 선조의 충의

49) 자항(慈航)이란 부처가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배의 운항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훗날 밀양 표충사(表忠祠)를 중흥한 남봉(南鵬)이 사대부들에게 요청해 받은 유정을 기리는 시들 가운데 자항(慈航)이라는 시어가 많이 등장한다.

50) 『漢韓大字典』, 서울:민중서림, 1988, p.738

51) 이철현, 「표충사에 대한 유교계와 불교계의 인식」 『불교학보』64(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3), pp.149~150

52) 鄭萬祚, 앞의 책, pp.91~92

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우를 세우고 제향을 한다는 것이다.

사원에 제향되는 인물은 도학이 저명하고 사림의 종사(宗師)로서 추앙을 받는 인물과 국난에 순절한 충신·열사 등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들을 추모하는 서원은 지역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대개 충(忠)자를 넣어 세워졌고, 조정에 사액을 청하여 사액서원이 되었다. 주요 사액서원으로는 1차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의병장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을 제향하는 포충사(褒忠祠)<sup>53)</sup>, 진주성전투에서 순절한 의병장 김천일(金千鎰, 1537~1593)을 제향하는 창렬사(彰烈祠)<sup>54)</sup>와 정렬사(旌烈祠)<sup>55)</sup>, 2차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조헌(趙憲, 1544~1592)을 제향하는 표충사(表忠祠)<sup>56)</sup>, 홍의장군으로 유명한 곽재우(郭在祐, 1552~1617)을 제향하는 충현사(忠賢祠)<sup>57)</sup>가 있었다.

밀양 사림에서도 임진왜란 당시 전사한 노개방(盧盖邦)<sup>58)</sup>, 손인갑(孫仁甲)과 그 아들 약해(若海), 그리고 숙종 때 덕망이 높았던 학자요 효자인 신동현(申東顯) 네 현인을 모시는 충효사(忠孝祠)를 밀양시 무안면 삼강동에 건립하고자 했다. 충효사를 짓고 있던 숙종40년(1714) 3월에 유림에서는 유정의 사당을 건립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림장(士林狀)을 관내 유림 진사 조하위(曹夏瑋), 진사 손석관(孫碩寬), 유학 이의룡(李宜龍) 등이 대표로 연명하여 올렸다.<sup>59)</sup>

그해 겨울 충효사가 완공되던 날 밀양부사 김창석(金昌錫)이 승려들로 하여금 모연하여 암자를 짓게 하고는 1715년 영당을 짓고 표충사(表忠祠)라 현판을 걸었다.<sup>60)</sup> 표충사라는 사당은 이미 광해군2년(1609)에 조헌을 위해 사액한 사당이 있었고<sup>61)</sup>, 현종13년(1672)에 후삼국시대 신숭겸 장군을 위해 사액한 사당이 있었다.<sup>62)</sup> 밀양의 유림들도 이미 사액서원으로 두 표충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터이고 유정 또한 충의를 높이 평가해 표충사라 이름 지었을 것이다.

표충사가 세워지자 유정의 5대법손인 남봉(南鵬)은 대대적으로 유정을 현창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먼저 영남의 승려 수백 명이 유정을 향사할 수 있도록 위전을 내려줄

5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3권, p.577

54) 위의 책 21권, p.678

55) 『新增東國輿地勝覽』35권, 전라도 羅州牧 사원조

56) 「表忠祠」『重峯集』『韓國文集總刊』54. p.580 萬曆戊申. 多士上疏. 請於墓下立祠以祀之. 朝廷許之. 翌年賜額曰表忠

57)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1\\_1\\_0&ccbaCpno=2332200110000](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1_1_0&ccbaCpno=2332200110000)

58) 노개방(盧盖邦)은 밀양 무안면 삼강동 출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

59) 이철현, 「밀양 표충사의 연혁에 대하여」 『불교학보』52(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9), p.133

60) 「表忠祠關文及完文」(표충사 소장, 필사본)의 1면 乙未年僧徒營建影堂揭號表忠祠

61) 「表忠祠」『重峯集』『韓國文集總刊』54. p.580 萬曆戊申. 多士上疏. 請於墓下立祠以祀之. 朝廷許之. 翌年賜額曰表忠

62) 문화재청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KS\\_01\\_02\\_02&VdkVgwKey=23,00010000,22&queryText=신숭겸장군유적](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KS_01_02_02&VdkVgwKey=23,00010000,22&queryText=신숭겸장군유적) 안내판

것을 호소하여 영조14년(1738) 2월 29일 위전 5결을 받았다.<sup>63)</sup> 그리고 사대부들을 찾아다니며 유정을 찬탄하는 시문을 모아 1738년 9월에 『표충사제영』을 발간하고, 1739년 7월에 유정의 난중일기인 『분충서난록』을 발간하고, 1743년엔 영당비를 세웠다.

이때 사대부들로부터 받은 표충사와 유정과 관련한 시문들을 통해 18세기 사대부들이 유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가를 살필 수 있다.

사대부들은 「표충사기」를 통해 유정을 충신(忠臣)·의사(義士)로 평가하면서 유정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표충사라 했다고 쓰고 있다. 이덕수는 표충(表忠)이란 세간법인데 유정의 충성이 크기에 출세간법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우니 그렇게 충성을 드러낸 것이며, 서산·송운·기허 세 대사의 신위 모시는 곳을 사찰이라 하지 않고 사당이라고 한 것은 세간법을 따라 공적을 보답하고자 한 것이라며 표충사를 지은 뜻을 밝히고 있다.<sup>64)</sup> 김홍(金滄)은 ‘밀양에 사당이 있는데 이는 선조께서 일찍이 건립한 사당으로 그의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름을 표충이라 했다.’<sup>65)</sup>고 했다. 이천보는 ‘충신(忠臣)·의사(義士)로서 국가의 어려움을 구하는 데 달려가고 임금의 원수를 급하게 여겨 죽음의 땅이라도 나아가지 못할 게 없었다.’<sup>66)</sup>고 했다. 이덕신(李德臣)은 ‘대사는 충의가 있는 사람으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 할 만하다.’<sup>67)</sup>고 했다.

조재호(趙載浩, 1702~1762)는 승려들은 머리를 깎고 먹물 옷을 입으며 인성과 천리도 여의고 오류와 삼강도 저버리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교도인데, 임금과 신하의 대의를 다하고 나아가 충절을 다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이교도라고 탓해도 자신은 우리 당의 사람으로 내세우리라고 했다.<sup>68)</sup> 유자들이 승려들을 배척하는 이유가 유자들이 말하는 인간윤리인 삼강오륜을 저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머리를 깎고 먹물 옷을 입어 이교도라 하겠지만 스승과 제자가 신심을 주고받으며 임금과 신하의 대의로 충절을 다하니 우리 유교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불살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율인데도 의승병을 모아 전장으로 달려 간 것은 오직 충성과 의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유정이 입적한 해인사에서는 유정의 비와 부도를 세우고 호를 따서 홍제당을 지어 영정을 모시고 승려들만이 불가의 의식으로 기일에 제사를 지냈다. 이에 비해 밀양 표

63) 『영조실록』 영조14년 2월 29일

64) 李德壽, 「嶺南密州靈鷲山表忠祠事蹟碑」『韓國寺刹全書』하,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p.495 表忠世法也. 而學出世法者, 取以名其祠焉. 奚大其忠也. 大其忠則出世法不足以囿也. 以其表之也, 固宜. 嶺南密州之靈鷲山有西山松雲騎虛三大師妥靈之所, 不寺而祠, 遵世法而報其功也.

65) 金滄, 「表忠祠記」『밀양 표충사 시첩』,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79

66) 李天輔, 「表忠祠記」, 위의 책, p.65

67) 李德臣, 위의 책, p.99

68) 「嶺南密州府靈鷲山表忠祠弘濟堂記」, 위의 책, p.75

충사는 유림의 건의에 의해 사당을 짓고 표충사라 현판을 걸고 유가의 전통으로 춘추 향사를 지냈다. 정출현은 홍제암과 표충사의 추모성격에 대해 ‘해인사 홍제암과 밀양 표충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명당을 추모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해인사 승려들이 세운 홍제암과 밀양 사족들이 세운 표충사라는 명명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전자가 사명당의 행적에서 불교의 자비를 강조했다면, 후자는 사명당의 행적에서 유교의 충의를 강조했던 것이다.’<sup>69)</sup>고 했다.

남봉은 유정이 임진왜란의 일을 손수 기록한 『골계도(滑稽圖)』를 간행하고자 김재로(金在魯, 1682~1759)에게 서문을 부탁하자, 김재로는 이름이 적합하지 않라며 ‘충성을 다해 난을 푼 기록’이라는 의미로 『분충서난록』이라 했다.<sup>70)</sup> 그리고 유정의 행적에 대해 승려는 임금과 부모를 버리고 출가하므로 임금께 충성하고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유가에서는 불교를 배척해왔다. 그런데 유정은 왜적이 침략하자 의승병을 일으켜 왜적을 물리치고 적진을 드나들며 정탐하고 일본에 들어가 조·일 평화를 이루었으니 그 충의가 위대하다고 칭찬했다.<sup>71)</sup>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자신의 활동을 세상에 나가 잠깐 장난친 것으로 간주하여 이런 이름을 붙였으나,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지향하는 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완세불공(玩世不恭)의 태도였기 때문에 적절한 이름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sup>72)</sup>

윤봉조(1680~1761)도 승려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버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나나 간혹 유정과 같이 탁월하고 걸출하여 안으로 유교를 품고 밖으로는 선교를 드러내는 자가 있다고 했다. 유정이 수염을 깎지 않은 것을 보면 대사의 은밀한 뜻을 이미 엿볼 수 있으며, 진실한 충성심과 의로운 용맹은 찬연히 빛난다고 평가했다.<sup>73)</sup> 유정이 머리를 깎은 것은 불자이기 때문이고 수염을 기른 것은 유자이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유정도 자신이 수염을 깎지 않은 것은 세속을 본받았다고 말하고 있다.<sup>74)</sup> 그러나 이는 충의를 다하는 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승려로서 전투에 참여한 걸 참회하고자 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75)</sup>

이러한 평가는 국난극복을 일궈내었던 한 위대한 승려를 불가인(佛家人)으로 인정한다면 조선조를 일관한 불교에 대한 탄압의 근본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불 승려

69) 정출현, 「사명당에 대한 사대부들의 기억과 그 시대적 맥락」 『고전문학연구』45(서울: 한국고전문학회, 2014), p.267

70) 김재로, 「분충서난록서」 『밀양 표충사 시첩』,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54

71) 위의 책, p.55

72) 이의강 옮김, 『분충서난록』,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0, p.13

73) 「분충서난록서」 『밀양 표충사 시첩』,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p.59~60

74) 『사명당대사집』 『韓國佛教全書』8. p.68c 留鬚效世且無家

75) 승려가 수염을 기르는 경우는 부끄러운 행위를 했을 때 스스로 참회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 사명을 유가 안으로 포섭한 방법이였다. 윤봉조의 시각은 당시 불교 승려들을 평가하는 유자들의 기본적인 잣대라 할 수 있다.<sup>76)</sup>

우의정 송인명(宋寅明, 1689~1746)은 유학에서는 임금과 부모를 버리고 윤리와 도리를 등진다고 불교를 비난하는데 어찌할 수 없는 급작스런 변고가 생기자 유정은 옷소매를 떨치고 의병을 일으켜 임금에 대한 충절과 윤리를 독실하게 이행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유정은 참다운 여래라 해도 되고, 우리 도학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된다고 했다.<sup>77)</sup>

『분충서난록』의 서문과 발문을 쓸 당시 김재로는 좌의정을 거쳐 관중추부사였고, 윤봉조는 이조참판이었고, 송인명은 우의정이었다. 불교를 배척하여 승과도 혁파되고 승려를 천시하던 시절에 당상관의 고위관직을 가진 자들이 『분충서난록』의 서문과 발문을 쓰고 있다. 이는 비록 승려이긴 하나 국난을 당하자 국가를 위해 전장에 뛰어든 유정의 충과 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불교는 세속을 떠나 충과 효와는 거리가 멀기에 비난을 했는데, 유정은 임금에 대한 충절을 가졌고 인륜을 바르게 이행했으니 유가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대부들은 승려인 유정의 충성과 의리가 2차 금산전투에서 700명의 의병과 함께 전사한 중봉 조현, 1차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제봉 고경명, 2차 진주성전투에서 전사한 건재 김천일 등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sup>78)</sup>

남봉은 여러 사대부들에게 받은 시문을 발간하기 위해 유취기(兪最基, 1689~1768)를 찾아가 발문을 부탁했다. 유취기는 불법의 공허하고 허황된 이론을 유교에서는 칭찬하지 않지만 유정은 영웅호걸의 훌륭한 공적도 있다고 했다. 승려이긴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유정의 공훈이 매우 크고, 자신은 충성스럽고 곧으며 절개가 있는 사람을 보면 흔연히 사모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유정과 같은 도는 아니나 사모해 우러러 받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sup>79)</sup>

『표충사제영』에 나타난 18세기 사대부들의 시에는 유정이 승려라는 입장을 들어 자비(慈悲)·자운(慈雲)·자공(慈功) 등의 시어가 많이 나타나며, 일본으로 들어가 끌려간 동포를 데리고 귀국한 일을 칭송하면서도 자항(慈航)·자선(慈船)의 시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충신으로 보아 충의(忠義)·충절(忠節)이라는 시어가 훨씬 많으며, 유가의 객재우·조현·고재봉·노개방 등과 다르지 않다고 찬탄하고 있다.

76) 권동순(원법), 「사명유정의 전시연구」『禪學』50(서울: 한국선학회, 2018), p.152

77) 송인명, 「분충서난록발」『밀양 표충사 시첩』,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62

78) 어유구(魚有龜, 1675~1740)의 「제분충서난록소서(題奮忠紆難錄小序)」, 윤봉조의 「분충서난록발」, 송인명의 「분충서난록발」에서 승려인 유정의 충의가 유자(儒者)인 조현과 고경명과 김천일과 같다고 했다.

79) 兪最基, 「題松雲大師往復詩札帖跋」『밀양 표충사 시첩』,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p.71~72

## V. 맺는 말

충과 효와 절의는 유교의 기본 윤리강령이다.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 세속을 떠나 임금에게 불충하고 부모에 불효하는 승려는 비난의 대상이었다. 조선개국의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승유억불의 정책을 펼쳤다. 임진왜란을 당해 한양·개성·평양을 내주고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가는 지경에 이르자 휴정은 전국 승려에게 격문을 돌려 의승병을 모았다.

승려들이 전장에 뛰어든 것은 임금과 백성의 은혜를 갚고, 적군의 악업을 막기 위한 자비심이었다. 유교에서는 임금에 대한 충의를 중요하게 여기나 불교는 보은과 자비를 말한다.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에는 부모의 은혜, 중생의 은혜, 국왕의 은혜, 삼보(三寶)의 은혜를 말하며, 휴정은 『선가귀감(禪家龜鑑)』에서 부모의 은혜, 군주의 은혜, 스승의 은혜, 시주자의 은혜를 말했다.

휴정의 심법을 이은 유정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들이 흉한 무기로 잔인하게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게 자비의 가르침이다’하며 금강산을 내려왔다. 연로한 휴정을 대신해 지휘한 유정은 평양성탈환을 비롯한 많은 전공을 세우고 적진에 들어가 왜장을 만나 정탐하고 전쟁후에도 탐적사로 일본에 들어가 끌려간 동포들을 쇄환해오고 조·일 갈등을 해결해 이후 260년간 조·일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의승장 유정에 대한 사대부들의 평가는 시대별 조금씩 달랐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들과 사대부들은 의승장 유정의 충의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이들은 나라의 안위만을 생각할 뿐 유정의 심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반면에 오랫동안 유정과 교류해온 이산해와 허균과 같은 사대부들은 국난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참전하는 승려 유정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국난이 끝나 산으로 돌아가길 바랐다.

임진왜란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의 두 난을 겪은 조선은 사회동요를 다시 다잡고 향촌질서와 양반세력 유지를 위해 충의와 예를 더욱 강조했다. 그리하여 각 지역 유림에서는 도학이 저명하고 사림의 종사(宗師)로 추앙받는 인물과 국난에 순절한 충신들을 배향하는 서원과 사우를 세우는데 힘을 모았다. 유행처럼 서원과 사우들이 세워지고 유림들이 모여 제향하면서 자신들의 향촌지배를 강화했다.

18세기 초 밀양 유림에서는 유정이 밀양에서 출생한 충신이라며 표충사라는 사당을 지어 향사를 지냈다. 임금에 불충하고 부모에 불효한다며 불교를 비난하는 유자(儒者)들이 유정을 위한 유교식 사당을 짓고 이름을 ‘충을 드러낸다’는 표충(表忠)이라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유정이 입적한 해인사에서는 홍제암을 지어 불가(佛家)의 전통에 따라 고승으로서의 유정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으나, 고향인 밀양에서는 지역유생들의 건의로 표충사(表忠祠)라는 현판을 걸고 유가의 전통에 따라 호국충신으로서의 유정을 기리며 관에서 제수를 받아 춘추로 향사를 지냈다.

표충사가 지어지자 유정의 5대법손인 남봉(南鵬)은 표충사가 있는 백하암을 중흥하고자 사대부들을 찾아다니며 시문을 모았다. 좌의정·우의정을 비롯한 많은 사대부들은 백성들에게 충의사상을 심고자 표충사와 유정에 대한 시문을 지어주었다. 『표충사제영』과 『분충서난록』의 서(序)와 발(跋), 「표충사기」, 그리고 시(詩)를 살펴보면 임진왜란이 끝난 뒤 140년이 지났지만 사대부들은 국가와 백성을 위기에서 구한 사명당 유정의 충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유정이 비록 승려이긴 하나 국난을 당하자 국가를 위해 충의를 다한 자이므로 밖으로는 불자이면서 안으로는 유자라 했다. 나라에 충성을 다함에는 고정명·조헌·곽재우·노개방 등과 같은 의병장들과 같다고 했다.

유정은 자신이 의승병을 이끌고 임진왜란에 참전하고 전쟁이 끝나고도 일본에 들어가 끌려간 동포를 데리고 돌아온 일을 임금과 중생의 은혜를 갚는 일과 자비행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유교의 지배이념을 가진 사대부들은 유정이 임진왜란을 통해 보여준 활동을 나라와 임금을 위한 충의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논어』
- 『맹자』
- 『忠經』
- 『四分律』
- 『梵網經』
- 『弘明集』 『고려대장경』33
- 『大乘本生心地觀經』 『고려대장경』37
- 『禪家龜鑑』 『韓國佛教全書』7
- 『사명당대사집』 『韓國佛教全書』8
- 『송운대사분충서난록』 『韓國佛教全書』8
- 『선조실록』
- 『영조실록』
- 『난중잡록』
- 『대동야승』37, 「再造藩邦志」2
- 『쇄미록』

- 『연려실기술』  
 『重峯集』『韓國文集總刊』54  
 『新增東國輿地勝覽』  
 『韓國寺刹全書』,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朝鮮金石總覽』,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漢韓大字典』, 서울: 민중서림, 1988
- 『밀양표충사시첩』,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성균관대학교유학과교재편찬위원회, 『유학원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2  
 이의강 옮김, 『분충서난록』,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0  
 鄭萬祚, 『조선시대서원연구』, 서울: 집문장, 1997  
 조영록 지음, 『사명당평전』, 서울: 한길사, 2009  
 양 웨이난 지음, 원필승 번역, 『불교사상사』, 서울: 정우서적, 2010  
 荒牧典俊, 「菩薩行と戒」『佛教における戒の問題』, 京都: 日本佛教學會, 1984
- 권동순(원법), 「사명유정의 선시연구」『禪學』50(서울: 한국선학회, 2018)  
 김방룡, 「사명당 유정의 승명활동과 공공행복」『동서철학연구』66(서울: 한국동서철학회, 2012)  
 김호귀, 「신라 忠義 관념의 형성과 불교의 世俗五戒」『대각사상』17(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2)  
 이철현, 「밀양 표충사의 연혁에 대하여」『불교학보』52(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9)  
 이철현, 「표충사에 대한 유교계와 불교계의 인식」『불교학보』64(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3)  
 정출현, 「사명당에 대한 사대부들의 기억과 그 시대적 맥락」『고전문학연구』45(서울: 한국고전문학회, 2014)

---

원고접수일: 2019년 12월 3일 심사일: 2019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6일

연구자소개: 이철현

- ① 전공: 한국불교 / 소속과 직위: 동국대학교(경주) 파라미타칼리지 교수
  - ② 관심영역: 사회갈등, 조선시대 유불 갈등
  - ③ 주요논저: 『나옹 혜근의 연구』, 『기화의 현정론 연구』, 『사명당 유정의 명·자·호』, 『붓다의 근본 가르침』, 『대승불교의 가르침』, 『갈등치유론』 (공저), 『교육과 한국 불교』 (공저), 『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 (공역)
  - ④ E-mail: cheadlee@hanmail.net
-

Abstract

Sadaebu's Evaluation of Samyeongdang Yujeong's Activity during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Lee, Cheolheon  
Dongguk Univ.(gyeongju)

Not only participated in the war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s a monk and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but also went to Japan after the war and brought compatriots home after conversing with Tokugawa Ieyasu. Government ministers and Sadaebu conferred a government post to Yujeong and his ancestors in three generations for his loyalty during the national crisis. And the people tried to vent their spleen by making Yujeong a mighty monk who compelled Japanese performing Taoist magic.

However, Yujeong entered the war from a merciful heart to return the favor of the king and the people and stop the misdeed of the atrocious Japanese invaders. And he desired to end the war as soon as possible and go back to the mountains to discipline himself.

After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Sadaebu valued Yujeong and his activity during the war from the perspective of fidelity, a traditional idea of Confucianism, and praised Yujeong saying he was a Buddhist on the outside but a Confucian on the inside. While Sadaebu interacted with Yujeong for a long time understood him as a merciful monk with divine power who came out to the world in the national crisis but went back to the mountains and enjoyed the nature afterwards.

After suffering the Japanese invasion and two Manchu invasions, Confusion scholars in the regions wanted to rebuild the disrupted order of local society and secure their position as a dominant force. They made Hyangyak from Confucian idea and emphasized loyalty and courtesy by constructing Seowon and Sawoo enshrining respected Confucian figures and

faithful retainers sacrificed during the national disaster. In the early 18th century, Sarim in Miryang regared Yujeong, who played an active rol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s a loyalist from the local and proposed to build a shrine called Pyochoongsa.

Nambung, Yujeong's disciple in the fifth generation, took the construction of Pyochoongsa as an opportunity to receive a lot of Sadaebu's epitaphs and literary works. These works stated Yujeong's repayment of kindness and mercy but most of them evaluated Yujeong as a loyal subject, who performed fidelity, along with the commanders of patriotic soldiers: Joheon, Gogyongmyeong, Kimcheonil, Gwakjaeil.

**Key words:** Samyeongdang, Yujeong, Pyochoongsa, loyalty, charity, gratitude, Nambung,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